

2024. 2. 23.(금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2월 22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 자료

담당부서 : 홍보기획관 서울브랜드담당관

서울브랜드담당관

김 지 혜

2133-6185

사진없음 사진, 영상 있음 매수 : 총 4매

캐릭터마케팅팀장

허 준

2133-6940

도심 한복판 세종대로에 아파트 3층 높이 '초대형 해치'가 떴다

- 세종대로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 8m 높이 새단장 해치 아트벌룬 선보여
- 지난 1일 해치 첫 공개한 DDP에 이은 두 번째 전시, SNS 명소로 자리잡아
- 서울 대표 명소 곳곳에서 깜짝 등장 전시 이어 나가 도시분위기 편(fun)하게 변화

- 서울 도심 한복판인 세종대로에 아파트 3층 높이 초대형 '해치'가 등장했다. 서울시는 15년 만에 새단장한 '해치' 캐릭터를 높이 8m 크기의 대형 아트벌룬으로 제작해 세종대로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옥상 서울마루에 전시한다고 밝혔다.
- 서울시는 2008년 해치를 서울시 대표 상징물로 지정하고, 2009년 해치 캐릭터를 발표한 이래 15여 년만인 지난 2월 1일 단청색의 붉은색과 푸른색을 트렌디한 감각으로 재해석한 새 해치 캐릭터를 공개했다.
- 이번 해치 아트벌룬 전시는 지난 2월 1일 해치 새 캐릭터 발표와 동시에 진행된 DDP어울림마당에 이은 두 번째로 시는 앞으로 서울의 매력 명소 곳곳에서 전시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.

- 새 해치가 첫선을 보인 DDP 전시는 서울패션위크, 국내 인기 예능 프로그램 ‘놀면 뭐하니’ 등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. 또한 서울시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국내외 팔로워들이 DDP 해치 아트벌룬 게시물을 9만 8천여 회 열람하고, 개인 계정에 공유하는 등 SNS 상에 아트벌룬 사진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. 이러한 인기로 힘입어 2회차로 서울 도심 한복판 세종대로에 해치 아트벌룬이 등장하게 되었다.

※DDP 아트벌룬 게시물 조회건수 : 市 국문 계정 82,175회, 영문 계정 15,958회

-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해치 아트벌룬 역시 DDP에 전시한 아트벌룬과 동일한 8m 높이로, 세종대로 어느 방향에서도 쉽게 눈에 띄어 시민들을 즐겁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. 또한 해치를 중심으로 빌딩 숲의 현대적 공간과 덕수궁의 역사적 향취가 어우러져 절묘한 조화를 선사할 계획.
- 서울시는 이번 해치 아트벌룬 전시가 시민들의 출퇴근 등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, 관광객들에게는 새로운 포토스팟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.
-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내 여기저기에서 깜짝 등장하는 ‘해치’와 예상치 못한 만남을 통해 시민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하고 해치를 통해 서울의 흥미롭고 매력적인 이야기도 전달할 계획이다.
- 현재 해치 인스타그램 계정(@hechi.soul.friends)을 통해 ‘해치&소울프렌즈’의 인스타그램을 공개하고 있으며, 옥외 전광판과 지하철·버스 등에서도 영상과 포스터를 선보이고 있다.

- 마채숙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“서울의 매력을 고스란히 담은 해치 캐릭터를 시민 일상과 접목해 서울도시 분위기를 편(fun)하게 변화 시키겠다”고 말했다.

붙임

해치 아트별론 사진

